

중국 동북지역의 선사시대 종교예술에 나타난 신의 형상

洪 熹*

◁ 목 차 ▷

- | | |
|----------------|---------------------|
| I. 序 論 | III. 원시예술에 나타난 종교의식 |
| II. 원시종교의 숭배대상 | IV. 結 論 |
| 1. 인격화된 신상 | |
| 2. 동물형상 | |
-

I. 序 論

史前시대의 원시종교는 중국 문명과 중국문화의 중요한 원천중 하나이다. 과거에는 중국의 특성상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8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학자들이 주의를 돌리고 있는 부분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직도 초기 중국의 문명사에서 종교적 관념이 사회체제와 조직 및 의례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며, 고고학과 민족학·종교학·역사학·미술고고학 등 학제간의 종합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종교관념과 종교적 체험·감정·언어와 행위를 통한 의례 등은 이미 원시 인류의 소실에 따라 사라져 버렸으므로, 당시의 원시종교를 복원하려면 이들이 남겨놓은 물질화된 유물과 자취를 통하여 재구성할 수밖에 없으므로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은 원시종교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고고학에서 발굴한 원시시대의 묘장제도·종교제사장소·신상·영물·종교예기·바위그림 등등은 이들의 종교관념과 활동이 물질화되어 남겨놓은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원시종교의 기원과 발전을 추적해 볼 수가 있다.

중화민족과 그 문화의 내원에 관한 문제는 80년대 들어와 고고학의 중대한 발견

* 대전대 중국학과 전임강사

이후로 학계에서는 이미 과거 황하유역의 一源論을 버리고 多源論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蘇秉琦는 중국의 고대문화를 6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있다. 1) 이 6대구역에는 각기 다른 지역적인 특색과 민족적인 특색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문명과 문화의 다양성을 통하여 중국문명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탐색하려고 한다. 중국은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인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속에서 각기 민족적인 특징을 띤 문화들이 서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중국의 자연적인 지리환경은 “외부세계와 상대적으로 격리되거나 혹은 반격리된 상태”에서 중국문화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아주 긴 시간동안 모두 기본적으로 독립하여 발전되어 나가게 되었다.” 2) 이 속에서 문화의 충돌과 융합이란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문화의 골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중에서 중국의 북방 지역인 고대 遼西지역은 본래 소수민족들이 활동하던 지역이었으나 새로운 고고발굴을 통하여 중국문명사를 일찌언전 앞당길 수 있는 문명의 중심으로 학계의 주목을 끌게되었다. “요서는 우리나라 저명한 고문화구이다. 더욱이 지금부터 7000-4000년 경에 요서지구를 주제로 한 연산남북지구의 고문화는 중화민족의 문화기원과 문명기원에 일찍부터 특별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3)

중국의 북방지역은 중국문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의 사마니즘 문화 또한 중국 문명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등 주변국의 문화에 깊은 연원을 갖고 있다. 張光直은 중국 고대문명은 이른바 샤만식의 문명이며 이것이 중국 고대문명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4) 이중에서도 중국 북방지역의 원시종교에 대한 연구는 북방민족의 종교사나 각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1) 蘇秉琦, 《中國文明起源新探》, 三聯書店, 1999年.

蘇秉琦는 1981년 제5기 《文物》에 발표한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와 동년 제4기 《史學史研究》에 발표한 《建國以來中國考古學的發展》이란 논문을 통하여 중국의 고고학문화를 다음과 같이 六大區系로 나누고 있다

1. 燕山 남북의 장성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
2. 山東을 중심으로 삼는 동방
3. 關中(陝西), 晉南, 豫西를 중심으로 하는 중원
4. 瓊太湖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부
5. 瓊洞庭湖와 四川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부
6. 鄱陽湖 - 珠江三角洲의 일선을 주축으로 하는 남방

2) 嚴文明 〈中國史前文化的統一性與多樣性〉 《文物》, 1987年 3期

3) 郭大順, 〈遼西古文化的新認識〉, 《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年論文集》, 文物出版社, 1989年

4) 張光直, 《考古學專題六講》, 文物出版社, 1986年

중국 고대문명중의 중대한 하나의 관념은 세계를 서로 다른 층차로 나누는 것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다. 서로 다른 층차 사이의 관계는 엄밀하게 단절되어 있어서 피차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중국 고대의 허다한 의식·종교사상의 아주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이런 세계관으로 서로 다른 층차 사이를 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소통을 담당하는 인물이 바로 중국 고대의 巫覡이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중국 고대문명은 이른바 샤만식의 문명이며 이것이 중국 고대문명의 중요한 특징이다.

의의를 갖고 있으며, 이 속에서 종교의식에 관한 형태와 숭배에 대한 오랜 관념과 습속에 대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하여 이 지역 문명에 대한 기원을 엿볼 수가 있다.

본 고에서는 지역을 한정하여 중국의 燕山 남북의 장성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 즉 고대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史前시대의 종교성을 띤 유물중에서도 신의 형상과 관련된 부분을 통하여 종교의식에 대한 형태를 파악하려고 한다.

II. 원시종교의 숭배대상

종교의 숭배물인 신상은 원시종교가 발전하여 일정한 단계에 오른 뒤에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종교관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시기는 구석기시대로 北京周口店의 山頂洞人 유적이다. 산정동인은 18,000년 전에 북경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짐승 뼈나 돌을 갈아서 장식품을 만들고 있어 이미 심미관념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산정동인의 유적지는 上室과 下室로 나뉘져 있으며 상실에서는 사람이 거주하고 하실은 장지로 사자를 매장하고 있다. 사자의 시체 위와 주위에는 적철광석 분말을 뿌려 놓았으며, 사람이 죽으면 혈액이 응고하므로 똑같은 물질을 더하여 사자가 다른 세계에서 부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⁵⁾ 이 유적은 중국에서도 구석기시대 말기에는 적어도 이미 원시종교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원시인들은 자연과의 생존속에서 점차 만물에는 모두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도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혼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도 육체를 떠나 홀로 존재 할 수가 있으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를 떠나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萬物有靈의 관념이 원시인들로 하여금 자연력을 인격화하고 신격화시키도록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자연력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자연력에게 인격과 의지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런 인격과 의지를 갖게된 자연력이 바로 최초의 신령에 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원시인의 추상적인 사유능력이 끊임없이 발달하여 점차 원래는 모호했던 신령의 관념에서 더 나아가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신의 형상으로 발전되었을 때, 물질을 사용하여 신의 형상을 만들어내게 된다. 또한 신의 형상을 빚어내고 조각해 내

5) 呂遵諤〈山頂洞人〉《中國大百科全書·考古學》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年

는 것은 예술의 범주에 속하며 또한 기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신석기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중국 각지에서는 원시신앙에 바탕을 둔 예술품들로, 숭배의 대상인 신상·벽사 성격의 영물·의례를 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기나 악기·채색 토기·토기에 새겨지거나 그려진 그림이나 부호 등등 신앙이나 종교관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원시종교예술에 대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중국의 북방지역에서도 신앙의 종류는 물론 재질과 기법도 아주 다양하게 찾아 볼 수가 있다.

1. 인격화된 신상

중국에서는 구석기시대 말기와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신의 형상이 출토된 적이 없었으며, 신석기시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內蒙古 興隆洼유적에서 石雕로 된 여신상이 출토되었다.

“1984년 內蒙 林西西門밖 興隆洼文化 유적에서 두 건의 석조상이 출토되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며, 모두 화강암을 조각하여 만들어졌다. 큰 것은 높이가 67cm, 작은 것은 높이 40cm이며 두 개가 대동소이하다. 공통점은 투박하며 여성으로 두 눈이 명확하며 입은 안으로 오목 들어가 있다. 코가 움푹되었고 두 귀가 적으며, 복부가 돌출되었고 유방이 비교적 크다. 다른 점은 큰 것은 귀 부분이 명확하고 두 팔을 허리 부분에서 교차하고 있으며, 작은 것은 귀가 분명치 않고 두 팔은 위를 향해 구부리고 있으며 장식품을 차고 있다는 점이다. 둘 다 下肢가 보이지 않고 尖狀體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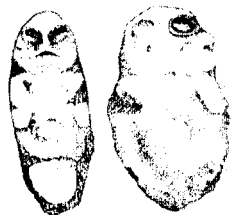


그림1 興隆洼文化의 女神像 《中國文物報》

1989년 內蒙古 西拉木倫河 북쪽의 白音長汗 신석기시대 문화 유적지의 “F19 거주면 중앙에 원형으로 조각된 반신 석인상이 세워져 있었다. 높이는 30cm로 정수리 부분이 뾰족하게 솟아 있으며 이마 부분이 돌출하였다. 눈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입 부분은 앞으로 나와 있다. 돌에 따라 형태를 만들었으며 수법은 간단하고 명쾌하면서도 극히 神韻이 있다. 이 석상은 모종의 원시신앙과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진귀하게 볼 수 있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⁷⁾ 이 석인상

6) 王剛〈興隆洼文化石雕像人體像〉《中國文物報》, 1993年 第47期

은 임신한 나체 여신상으로 보고 있다. “이 석인상은 돌출되게 성기관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 일목요연하게 그 성별을 파악 할 수는 없으나, 미미하게 용기된 복부는 도리어 임신한 부녀자의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⁸⁾

1983년에서 1989년에 이르기까지 河北灤平后台子 신석기문화 유적에서 6건의 석조 임부상이 출토되었다. 높이는 9.5에서 3.4cm로 휘록함을 조각하여 만들었다. 유방이 나와 있고 배가 볼록하며 둔부가 크다. 두 팔은 안으로 배를 감싸안고 있으며 두 다



그림 2 灤平后台子 출토된 石雕女神像《文物》

리는 무릎을 구부려 꿇어 안고 있고 아래는 원추형이다. 가장 작은 것은 6cm로 가부좌를 하고 손은 들어올린 상태이다.

이 유적지의 夏家店文化 상층에서 활석으로 만든 석인상 1건을 채집하였다. 가부좌에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미골 밖으로 눈이 밖으로 튀어 나와 있고 아래턱이 뾰족하다. 두 귀는 크며 허리가 아주 가늘고 등 뒤에는 다리형 고리가 있다.⁹⁾



그림3 灤平后台子 출토된 石雕女神像《文物》

1980년 內蒙古巴林右旗那斯台 유적지에서 석조각품 6건을 채집하거나 징집하였다. 석인조상 1건은 높이 19.4cm로 전체를 반들반들하게 갈았다. 머리 위는 삼층의 相輪형 장식이며 윗부분은 평평하다. 두부는 마름모형에 가까우며 눈과 눈썹은 八字형으로 浮彫하였고, 입부분은 명확한 각흔이 없다. 양팔은 가슴앞에서 합장상을 하고 있으며, 다리는 땅에 꿇어 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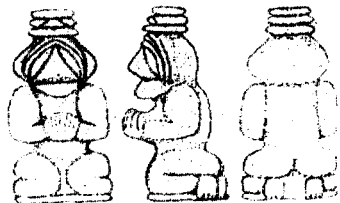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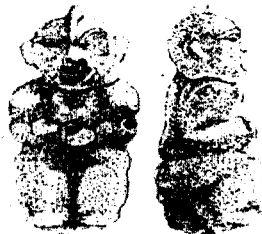
7) 郭治中·包青川·索秀芬《林西縣白音長汗遺址發掘述要》《內蒙古東部區考古學文化研究文集》, 海洋出版社, 1991年

8) 郭治中《論白音長汗發現的女神像及其崇拜性質》《青果集》吉林大學出版社, 1993年

9) 湯池《試論灤平后台子出土的石雕女神像》《文物》, 1994年 5期

아 있고 나체에 맨발이며, 성별 특징이 없다. 다른 1건은 35.5cm로 굵어 앉아 있는 표형상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었다.10)

이중 興隆洼유적은 8000여년전으로 지금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신상중 가장 연대가 오래 되었으며, 溧平后台子 유적은 趙寶溝文化 유형으로 지금부터 7000여년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돌을 조각하여 만든 석인상으로 나체로 입부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어떤 것은 꼬그리고 앉아 출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白峯長汗의 여신상은 주거지 가운데에 세워져 있으며 화덕을 바로 보고 있어, 분명히 사람들이 실내에서 받들던 여신의 원 모습을 살펴 수가 있다.



遼寧喀左縣의 東山嘴紅山文化 유적에서 모두 20여건의 잔결된 陶塑人像이 발견되었으며, 대다수가 사람의 肢體부분이다. 소형입부 소상은 2건이며, 나체 입상으로 머리·팔이 잔결되었고 복부가 돌출되었다. 둔부가 비대하며 좌측 팔을 안으로 오므리고 왼손을 상복부에 대고 있으며, 음부를 표현한 기호가 있다. 잔고 높이가 5.8cm이다. 대형인물 좌상은 상·하신 각기 한편씩 발견되었다. 소조가 빚진하고 자연스러우며 크기는 사람 형상의 2/1에 해당한다.11) 이 도소인상들은 원형의 제단 유적지에서 발굴된 것으로

그림4 內蒙古巴林右旗那斯台人神像 《考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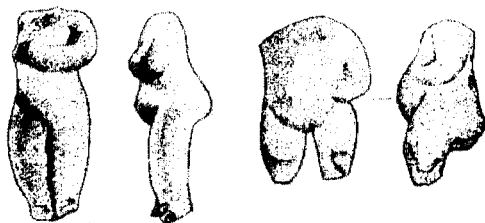


그림 5 紅山文化의 陶塑 입부상 《文物》

이미 이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공공의 제단이 출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소형의 입부상이 나체에 음부를 표현하여 명확하게 여성의 출산과 생식이라는 특징을 표현해주고 있는 만

10) 巴林右旗博物館〈內蒙古巴林右旗那斯台遺址調查〉《考古》1987年 6期

11) 郭大順·張克舉〈遼寧省喀左縣東山嘴紅山文化建築群址發掘刊報〉《文物》, 1984年 11期

면에, 대형 좌상에는 의대류의 장식이 출토되고 있으므로 이 둘의 성격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3년에서 1985년 사이에 발굴된 遼寧牛河梁紅山文化는 女神廟를 중심으로 주위에는 積石家群이 배열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연대가 빠른 대형 제사 유적지로 여신들과 각종 동물 소상들의 잔편은 물론 정교한 옥기들이 출토되었다. 이 중 사람의 얼굴 크기와 같은 여신의 두상은 두 눈에 옥을 박아 넣었으며 조형이 생동적이고 꺾진하여 마치 살아 있는 것 같다. 크고 작은 여신들이 군상을 이루고 있으며 주신의 크기는 사람의 3배 정도나 된다. 여신묘의 陶塑人像은 잔결되어 5·6개 개체로 나뉘져 있으며 이들의 형체에는 대소와 노소의 구별이 있다. 혹은 팔을 뻗치기도 하였고 팔꿈치를 굽혀 주먹을 쥐기도 하였으며 다채로운 자태를 띄고 있어 마치 살아 있는 여신의 군상을 이루고 있다. 이 여신묘의 제사 대상으로 보면 이미 신격화된 사람의 소상도 있고 신화된 동물의 소상도 있다. 다만 사람의 형상인 여신이 제사의 주요한 대상이며, 동물은 사람에 부속되어 있다. 이런 여신은 신격화된 선조의 형상이다.¹²⁾



그림 6 紅山文化의 여신상 《文物》

2. 동물의 형상

인격화 된 형상외에 각종 동물 형상도 출토되고 있다. 실용적인 기물에 사용된 형상외에도 이런 동물의 형상은 몸에 잘 수 있도록 정교하게 만들어진 옥기나, 혹은 陶塑나 石雕·骨雕·木雕 등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동물형상들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술적인 심미관보다는 종교적인 용도로 쓰였겠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北京平谷縣의 上宅유적지에서는 영물의 성격을 지닌 陶猪頭, 石雕狹飾과 石鸚頭像 등과 제사에 사용된 기물로 여겨지는 鳥首形鑲孔器가 출토되었다.¹³⁾

- 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牛河梁紅山文化“女神廟”與積石家群發掘簡報〉《文物》, 1986年 8期
孫守道·郭大順〈牛河梁紅山文化女神頭像的發現與研究〉《文物》, 1986年 8期
- 13) 北京市文物研究所·北京市平谷縣文物管理所上宅考古隊 〈北京平谷上宅新石器時代遺址發掘簡報〉《文物》, 1989年 8期

牛河梁여신묘에서 여신상과 동시에 출토된 동물 泥像잔건에는 이미 神化된 猪首龍의 머리와 대형 새의 발톱이 나왔으며, 鵝形石飾은 조형이 작고 각획이 간단하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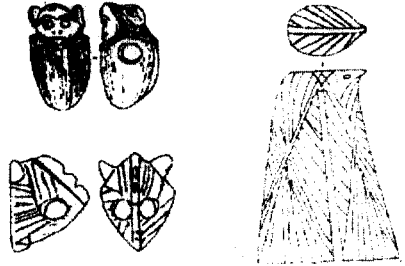


그림 7 上宅獸形器物과 鳥首鑲空器 <文物>

小河沿文化에서 출토된 鳥形壺는 꼬리가 짧고 등이 비스듬하다. 머리를 들어 올리고 입을 벌리며 날개를 펴고 날아가려는 모습에다 꼬리 부분에는 7개의 작은 구멍이 있어 원래는 깃털을 꽂았던 것 같다. 머리위와 목 부분에는 三道 혹은 흑색 채대를 등글게 그렸다. 오목 들어간 흑색 등근 눈은 생동적이고도 짙진하다.¹⁵⁾



그림 8 木雕鳥形

黑龍江의 密山新開流의 骨雕鷹首는 물수리가 목을 빼고 창공을 날며 사냥감을 찾는 생동적인 형상으로 조각하고 있다. 장기간 훈련시킨 물수리가 사람들을 도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모서리에 魚形을 조각하였으며, 간결하게 물고기기가 나오는 형태를 그리고 있다.¹⁶⁾

沈陽의 新樂下層 유적에서 鳥形의 木雕물이 출토되었다. 길이 40cm, 넓이 4.5cm 날작하고 평평하며 양편의 문식은 기본적으로 서로 같다. 조형의 탄화된 목조예술품은 權杖과 흡사하며, 자루 윗부분의 조식 도안은 토템의 휘치일 것이다. 권장은 씨족수령이 씨족을 다스릴 적에 사용된 것이며, 새토템의 씨족이었을 것이다.¹⁷⁾

內蒙古의 敖漢旗小山 유적에서 출토된 陶器 표면에는 猪形首·鹿形首와 鳥形首등의 영물 도상이 장식되어 있다. 문양을

1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牛河梁紅山文化“女神廟”與積石冢群發掘簡報> <文物>, 1986年 8期
 15) 李恭篤 <昭烏達盟石棚山考古新發現> <文物>, 1982年 3月
 16)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密山縣新開流遺址> <中國考古集成·東北卷·新石器時代(二)>, 北京出版社
 17) 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沈陽古宮博物館 <沈陽新樂遺址第二次發掘報告> <考古學報>, 1985年 2期



그림 9 趙寶溝文化刻畫麒麟龍紋陶尊

길게 뽑고 높이 날아 가려는 모습을 하고 있다.¹⁸⁾ 敖漢旗南臺地の 趙寶溝文化 유적에서도 1983년 鹿首神獸紋과 神鳥紋의 尊形器 5건을 채집하여 복원하고 있다. 이중 鹿首神獸紋은 一長一短으로 몸이 둥글게 굽었고 날개가 나있다. 눈은 유엽형이며, 긴 사슴의 몸에는 비늘이 나있다. 고리는 반원으로 나와 삼각형 사선식 문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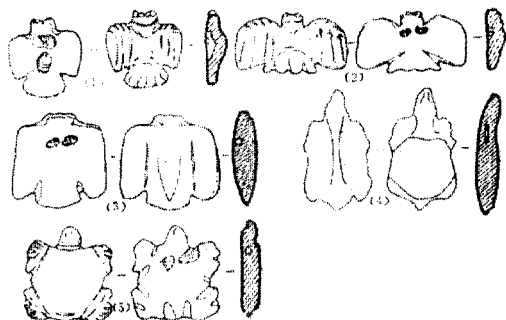


그림 10 阜新縣胡頭溝의 동물형 옥기

몸에는 비늘이 나 있고 하늘을 운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환상속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용의 형상에 대한 단서를 찾아 볼 수가 있다. 趙寶溝文化의 猪首形

만들기에 먼저 윤곽선을 둘러서 그려 낸다음에 세밀하고 규칙적인 그물무늬를 넣었다. 단지 각 영물 중 猪形首의 어금니 鹿形首의 귀 중간부분·위턱과 발꿈치등은 광택면을 유지하고 있어 영물의 형상을 살아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猪形首의 가는 눈과 긴 주둥이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고, 코는 위로치켜 올라가 있으며 어금니는 길게 뻗어나와 굽어져 있다. 몸은 뱀의 몸체로 둥글게 말아 올려져 있고 그물모양과 매끄러운 표면이 교차되어 비늘모양을 새겨 놓고 있다. 鹿首形과 鳥首形 영물은 모두 목을

더해졌다.¹⁹⁾ 이들 동물형의 머리 부분은 실생활의 돼지·사슴·새의 형상이나, 猪首의 몸은 뱀의 몸을 하고 있고, 鹿首와 鳥首의 우측에는 깃이 나오고 있어 이들이 단순한 현실적인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상속에서 창조해 낸 영적인 숭배 대상임을 알 수가 있다. 小山의 이 猪首形 圖像은 돼지와 뱀의 결합에다

1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內蒙古敖漢旗小山遺址〉《考古》, 1987年 6期

19) 敖漢旗博物館〈敖漢旗南臺地趙寶溝文化遺址調查〉《內蒙古文物考古》, 1991年 1期

은 홍산문화의 猪首龍과 三星他拉的 옥룡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용의 형상이 점점 정형화된다.

홍산문화의 牛河梁·東山嘴·阜新縣胡頭溝·凌源縣三官甸子·內蒙三星他拉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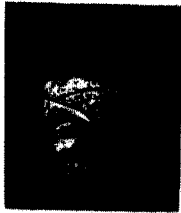


그림 11 滑石雕刻 人과 鳥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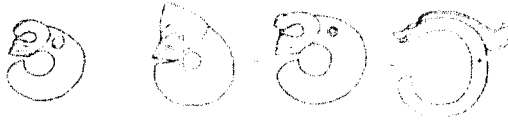


그림 12 獸形玉-龍形玉 변화도 《文物》

등에서 모두 홍산문화의 옥기가 출토되었다. 홍산문화의 玉雕중 동물 모양에는 鳥·龜·鶚·蟬등과 猪首龍과 옥룡등이 출토되었다. 三星他拉村에서 출토된 옥룡은 흑록옥을 원자로 만든 것으로 높이는 26cm이고 둥글게 굽어 C자형이며 용머리는 저수형이다. 이는 홍산문화의 옥룡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기도 하다.²⁰⁾ 홍산문화에서 발견된 건축군과 제단 유적, 나체여신상과 옥조 예술 특히 옥룡농은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

회구조와 의식등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홍산문화 용형상의 출현을 표지로 삼아 우리는 오천여년전에 요하 유역이 역사의 源頭에 있으며, 이 지역 문명시대의 서광을 볼 수가 있다"²¹⁾고 하였다.

요녕성 동구현 후와유적지에서는 조수 인물상과 동물상 40건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는 石雕·陶塑와 동물형문식을 새긴 陶片으로 나눌수 있다. 동물상에는 猪·虎·鳥·鷹·魚·蟬·虫등이 있다. 이 중 주의할 것은 양면으로 조각한 사람과 새의 형상이다. 정면은 人頭像이고 뒷면은 원래 형상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새가 머리를 돌리고 있는 형상을 조각해 놓고 있다. 새의 머리는 볼록 튀어나와 머리를 돌려 몸에 붙이고 있다. 후와 상층에서도 양면 雕塑人頭像이 출토되었다. 정면은 猴面像으로 이

20) 翁牛特旗博物館〈內蒙古翁牛特旗三星他拉村發現玉龍〉《文物》, 1984年 6期
李恭篤·高美璇〈紅山文化玉雕藝術初析〉《史前研究》, 1987年 3期

21) 孫守道〈論遼河流域的原始文明與龍的起源〉《文物》, 1984年 6期

마 부분이 튀어 나왔으며 얼굴부위는 안으로 들어갔다. 입은 반월형으로 들어가 있고 아래턱에는 몇 개의 짧은 선을 새겨놓아 수염을 표시하였다. 후와 조소상의 형체는 모두 비교적 작아서 3-4센치 좌우이며 가장 큰 것은 6센치미터이며 가장 작은 것은 1센치 정도이다.²²⁾ 이들 동물 雕像是 종류도 다양하며 당시 생활이나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물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장식 예술품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원시종교 관념을 지니고 있는 영물이라 할 수 있다. 동물 모양의 벽사물을 만들어 몸에 차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길상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재난을 물리쳐 준다고 믿고 있다.

Ⅲ. 원시예술에 나타난 종교의식

신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원시예술은 조소나 조각은 물론 문양과 彩陶·彩繪·岩畫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질도 나무·돌·흙·옥·뼈등 자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

이들 원시 신앙은 모두 대부분 씨족 부락 공공의 숭배물이다. 홍산문화 유적에서 발굴된 사람과 크기가 같거나 또는 큰 여신상은 모두 고대 국가 소유의 신앙으로 씨족 부락이나 고대 국가에서 중대한 제사를 거행하거나 제사 의례가 있을 적에 쓰이던 것이다. 당연히 지리환경과 생존 조건등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씨족 부락도 크고 작은 구분이 있으나, 작은 부족도 자신의 신앙이 있으며, 자기 부족이 받들며 풍요와 기원을 드리던 숭배의 대상물이다. 그러다 사유관념이 출현하면서 개인에 속하는 신앙이 나오게 되었다. 때로는 개인의 집에 모시기도 하고 자기 몸에 차고 다니면서 호신부로 쓰면서 벽사의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들 신앙은 대체로 서로 교차된 3단계의 발전단계가 있다고 여긴다. 제1단계는 가장 원시적인 단계로 이 시기의 원시종교의 특징은 자연숭배이다. 원시인들은 자연계 만물에 모두 영혼이 있다고 여겨 초자연적인 성격을 부여하게 되면서 사람위에 높이 거주하고 있는 갖가지 신령을 창조하고 있다. 제2단계의 특징은 토토텐숭배이다. 선사회의 초기단계에는 동식물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집적적이고 가장 친밀하였다. 인류는 동식물에 특수한 친근감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인류는 자신과 어느 동식물 사이에 일종의 신비한 관계에서 심지어는 혈연관계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어느 한

22) 許玉林 〈后洋遺址出土的雕塑人像和動物像〉《中國各民族原始宗教資料集成·考古卷》, 1996年

동물은 어느 씨족 부락의 선조라고 여기게 된다. 이런 토렘동물은 그 씨족 부락이 숭배하고 받드는 신령이 된다. 이런 씨족부락은 허다한 금기와 의례를 만들어 토렘 조상을 보호하고 공경하게 된다. 토렘동물은 사람들에게 의해 圖像이나 雕像으로 만들어져 이들의 족휘나 신상이 된다. 제3단계는 조상숭배이다. 조상관념의 출현은 비교적 늦다. 조상관념이 일단 출현하고 나서는 제어할 수 없는 추세로 원시종교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이후 사회가 발전되어 고대 국가 형태를 띠게 되면서 자연숭배와 조상숭배가 서로 결합하면서 천신숭배가 생겨나게 되며, 사회조직이 완비되어 가면서 신의 조직도 정비되어 체계화된 신의 계통을 형성하게 된다.

여신상의 신격에 관하여 중국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 이들 여성 조상의 공통성은 나체 임부상으로 생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정육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거나 혹은 豐產 巫術의 산물이며 아울러 地母등과 연관되기도 한다.²³⁾ 선조의 우상²⁴⁾, 중국의 비너스로 이는 생육의 신이며 혹은 高禩神²⁵⁾, 雕像의 하반신이 땅속에 묻혀있어서 만물이 땅에서 나고 땅에서 자란다는 뜻이 뚜렷하므로 이는 바로 地母의 형상²⁶⁾이라고도 하며, 이밖에도 火神·農神으로 말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격화된 신의 형상은 대다수가 여성적인 특징을 띄고 있으며, 나체 임부상과 같은 것은 여성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 당시는 모계 혈연을 중심으로한 씨족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여신 신앙은 사실 여시조 신앙으로 볼 수가 있다. 특히 여성의 출산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며 자연계의 위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은 물론 동식물의 번성을 기구하는 생식숭배가 보편적이었다. “아주 오랜 시기에, 여인의 생육 능력은 일종의 신성한 역량으로 보았으며, 찬미와 감격을 받는 신이 관리하였다”²⁷⁾ 그러므로 여신의 숭배는 바로 생식능력을 갖춘 여인 선조를 숭배하는 의식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출토된 인류 형상의 유물들을 모두 일률적으로 신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興隆洼와 溧平台后子の 석조상, 東山嘴의 陶塑人形坐像이나 牛河梁의 대형 여신두상처럼 정밀하게 제작되었으며 비교적 완전하며 供奉하기에 편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신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지가 잔결된 소형 임부상과 같은 것은 신상이라기 보다는 巫術을 행하기

23) 朱狄 《原始文化研究》 三聯書店, 1988年

24) 孫守道 郭大順 〈牛河梁紅山文化女神頭像的發現與研究〉 《文物》, 1986年 8期
殷志強 〈也談東山嘴紅山文化神祀遺址〉 《北方文物》, 1986年 3期

25) 〈座談東山嘴遺址〉 《文物》, 1984年 11期

26) 石云子 〈原始藝術 - 生育女神雕像〉 《中國文物報》, 1994年5月22日

27) 魏勳 《性崇拜》 中國青年出版社, 1988年

위한 도구라고 보여진다.²⁸⁾ 임신을 바라거나 혹은 병을 전가시키기 위한 모종의 의식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예는 민족지 자료에서 흔히 찾아 볼 수가 있으며, 后洋에서 출토된 조악하게 만들어진 人像이나 혹은 동물의 형상은 오히려 숭배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무술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도구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貴州 동남부의 苗族은 13년마다 한번씩 吃粘臟이란 활동이 유행하고 있다. 부녀자들은 신전의 벽에 붙여 있는 밀가루를 사용하여 남녀상을 빚거나 혹은 나무로 남녀상을 깎아 생육을 기원하고 있다.”²⁹⁾ 이 또한 생육을 기원하는 무술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홍산시대의 사람들도 각기 자신이 만든 소형 입부상을 갖고 와 농작물의 풍요와 인축의 다산을 기원하는 巫術의 도구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원시예술에서는 동물을 제재로 한 것들이 많다. 동물은 사람이 살아 가면서 생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인간 생활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동물상을 모두 원시인의 토템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들이 영물로 숭배했거나 혹은 무술활동을 위한 예술품이기도 하다. 인간이 갖지 못한 많은 능력을 동물들이 지니고 있으며, 이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을 신격화하게 된다. 새는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만과 신의 사자가 되며, 물고기는 다산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이들 동물상이 상징하는 숭배대상은 이미 씨족의 보호신이지 반드시 씨족 토템 조상의 상징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人獸가 결합한 도상은 전형적인 토템의 형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토템 숭배와 조상숭배가 서로 교차되어 결합한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 后洋유적에서는 동시에 많은 석조 혹은 도소 동물상과 인수결합상이 출토되었으며, 이들 모두 그 씨족의 토템이나 보호신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중에는 모종의 무술을 거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도 있을 것이며, 혹은 사람의 몸에 차고 다니는 영물 성격을 띄기도 한다.

IV. 결 론

인류의 감정을 표현해 낸 각 민족의 예술 또한 모두 자신이 처한 사회환경속에서 생겨났으며, 모종의 구체적인 신앙이나 가치관념의 체계와 관련되어 있다. 원시유물

28) 陳星燭 〈豐產巫術與祖先崇拜〉《華夏考古》, 1990年 3期
宋兆麟 〈中國生育信仰〉上海文藝出版社, 1999年

29) 〈座談東山嘴遺址〉《文物》, 1984年 11期

에서 보이는 예술을 실용예술과 종교예술로 구별할 수가 있다.³⁰⁾ 실용예술은 실생활에 쓰이는 기물이나 도구 속에 나타난 문양이나 조형·기법 등처럼 실용성과 심미관념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예술은 원시신앙을 바탕으로 종교적인 관념과 행위를 위하여 만들어졌거나 또는 종교적인 신앙체계에서 나온 예술품으로 심미관보다는 본래의 기능성을 우선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원시민족의 대부분 예술작품은 모두 순수한 심미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그것이 실제적인 목적에 있어서 유용한 것인지를 생각하며, 아울러 후자가 여전히 주요한 동기이고 심미적인 요구는 단지 부차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뿐이다."³¹⁾ 그러므로 원시예술에 나타난 형상들은 당시의 정신이 물질로 형태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다시 문명사를 복원할 수 있는 작업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사회현상과 사회기능의 예술 표현이며 사회의 발전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문명의 기원 문제를 토론하면서 예술에 관한 요소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예술은 문명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당시 사회와 문화 의례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요서에서 제단과 여신묘가 계속 발견되고 사람 크기와 같은 여신의 두상과 나체 임부상들, 그리고 동물형 옥과 석조각, 형체가 서로 다른 옥통들은 이미 원시 씨족사회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중국은 이미 오천년전에 공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또 공사를 능가하여 한 단계 높은 사회조직형식이 생겨났으며, 이런 발견은 중화 문명사를 천년 앞당기고 있다."³²⁾

30) 昭望平은 《史前藝術品的發現及史前藝術功能的演變》에서(《慶祝蘇秉琦考古五十五年論文集》, 文物出版社, 1989年)史前미술품을 彩陶예술, 彩繪예술, 陶器的刻紋裝飾藝術, 陶塑예술, 조각예술, 鑲嵌예술, 청동예술의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소개한 뒤에 진일보하여 사전예술의 발전과 사회 기능의 변천을 논하고 다시 사전예술품을 용도에 따라 실용예술과 종교예술의 양대류로 나누고 있다. 이런 양 유형의 사전미술은 "전체 사회성원의 미화와 씨족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봉사"하였으나 발전되어 후기에 이르면 "상층계급에 대한 봉사를 그 주요 기능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탈변"되었다. "사람들의 종교의식은 이미 등급이 엄격한 神統을 출현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런 신의 계통은 바로 세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층차의 피라미드식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31) 格羅塞著, 蔡慕暉 《藝術的起源》 商務印書館, 1987年

32) 蘇秉琦, 《中國文明起源新探》, 三聯書店, 1999년

【中文概要】

原始宗教是古代中國文明和中國文化來源之一和重要特徵。中國東北多處新石器時代遺址，特別是興隆文化·趙寶溝文化·紅山文化遺址的發現，證明了中國北方是古代中國人生息繁衍的重要地域，北方的原始宗教藝術也是中國古代文明的一組成部分，代表了中國東北許多民族的精神·思想和力量，而且探明宗教觀念在不同歷史時期在東北精神生活中的作用，其原因就是由于原始信仰中的藝術保存了古老觀念和習俗的遺跡，可以從中獲得有關社會的變遷和宗教的演變。

作為宗教的崇拜物，神像是在原始宗教發展到一定階段上的事情。原始人思维的抽象能力不斷發展，逐步達到了能根據原來模糊的神靈觀念來抽象出一具有可視和加感形象的神像時，一物質為載的神靈形象就被製造。原始神靈的形象，就其造型來說，屬於藝術的範疇。藝術的問題，也是技術問題。根據考古發現的有關資料分析，新石器時代的宗教藝術，從質地和技法的區別上可分為陶(泥)塑藝術·石·木·骨雕藝術·玉器藝術。主要根據題材內容和造型的不同，這一類藝術又可分為人形神像和動物神像人·獸組合像。一般說來，原始神像都是氏族部落的公共崇拜物，是供氏族部落舉行重大慶典或活動時獻祭用的。私有觀念出現，也就隨之出現了屬於私人的神像。

一般認為原始宗教大致分三互有交叉的發展階段。自然崇拜，自然界的萬物都被賦予了超自然的性質，從而創造出了高居于人之上的各種神靈。圖騰崇拜，動植物與人的關係有一種特殊的親近感，某種動物被認為是某氏族部落的祖先。圖騰動物常常被族人制作成圖像或雕像，作為他們的族徽或神像。祖先崇拜，在東北史前時代出土的不少女神像，都有女始祖先崇拜遺物的痕迹。多采多姿的神靈的形象，內涵豐富的原始藝術，當可生動具體地展現出史前時代各發展階段上豐富多變的宗教生活和社會生活。